

마음공부로 행복의 씨앗 심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주지 혜도)은 '멋쟁이 내 친구'라는 주제로 초·중·고생을 위한 겨울방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12월 30일 초등학생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초등학생 2회, 중등학생 2회 총 4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지 혜도 스님은 "보다 많은 이들을 마음공부로 이끌고 또 내년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며 "이 시기에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생을 위한 마음공부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겨울 수련 프로그램의 한 장면.

어린이·청소년 겨울 방학 프로그램 '멋쟁이 내 친구' 성장과 변화 기대

새법당 준공 이후 마련된 첫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만큼 준비하는 정성도 지극하다. 참가자들의 수련복을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마련했고, 기간 동안 건강사찰음식을 식단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할 예정이다.

'멋쟁이 내 친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불교라는 이름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렇다면 주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첫째, '마음으로 그리니 춤'은 불가의 지혜와 마음 작용을 담고 있는 선법가의 뜻을 음미하며 마음에서 느껴지는 바를 몸으로 표현 내면의 무한 에너지를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꿈을 그려 보고 꿈과 목표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행복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이외에도 캠프파이어, 자유 선택프로그램으로 염주 꿸기, 단청그리기, 탁구, 배드민턴 등이 마련돼 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산다.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기 위해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는 마음의 무한에너지를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라며 "행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일깨우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으로 행복한 사회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1)403-7077

박경수 부산지사장

'선다를 통한 내면 여행' 이색 진로 체험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고3 위한 프로그램 진행

부산 동명대(총장 실동근) 불교문화학과가 동계방학을 앞두고 중고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명대 불교문화학과(학과장 박재현)는 지난 12월 2일 동명관 세계선센터에서 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선다(禪茶)를 통한 내면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명상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건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와 세계선센터를



동명대 불교문화학과는 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다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재현 불교문화학과 학과장은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자칫 들뜨기 마련인데 이럴 때 잠시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정서적 안정과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

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차맛을 음미하며 한국, 중국, 일본 차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참선체험과 지혜 계발, 명상요가 체험 등을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홍원사 낙성 법회

칠곡 동명 홍원사(주지 홍원)는 12월 1일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

김호철 신도회장은 "점안과 낙성 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온누리 모든 중생이 삼독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속에 맑고 향기롭게 삶을 살아가길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러한다"고 밝혔다.

2부에는 테이프질단 공로패 증정,경과 보고, 후원 주지스님인사, 보은 스님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응공조계종 중흥법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 자리



홍원사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 법회

에 동참한 불자는 상을 버리고 신심을 가져야 한다.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삼독심을 이겨내야 한다. 이를 위해 홍원사 법당을 귀의처로 삼아 정성껏 발원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호스피스 사례집 <정도의 하얀 연꽃> 발간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대표이사 지현, 관음사 주지)은 환희불교복지대학 창립 15주년을 맞아 불교호스피스 사례집 <정도의 하얀 연꽃>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환희불교복지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지혜, 원력을 바탕으로 15년간 호스피스 정기교육 30기까지 1,2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이곳에서 배출된 600여명의 봉사자들은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정원 보존은 교리 수호하는 일

우리나라 정원의 조성은 불교의 전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전래 초기단계에 지어진 부여 정림사의 쌍지(雙池)나 경주 불국사의 구품연지와 같은 정원유구들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한다.

일본의 경우 유명한 정원은 대부분 사찰에 남아있는 것이다. 헤이안(平安)시대에 만들어진 모쓰지(毛越寺)나 보도인(平等院)의 정원은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가마쿠라시대에 만들어진 교토의 덴류지(天龍寺)나 사이호지(西芳寺), 료안지(龍安寺), 다이센인(大仙院)의 정원은 선사상에 기초한다. 이러한 정원은 대부분 그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원을 만드는

스님을 석립승(石立僧)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보면 정원 만드는 명인들은 대부분 스님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마쿠라시대에 살았던 무소소 소세키(夢窓疎石)나 무로마치시대에 활동했던 화성(畵聖) 셋슈(雪舟) 같은 스님들이 증거하고 있다. 이 스님들의 작품은 아직도 일본 각지의 사찰에 잘 남아있어 스님들의 숨겨진 후대에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원의 원류가 사찰의 정원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우리나라에도 스님들이 만든 정원이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원은 대부분 그 사찰에 주석하는 스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원을 만드는

있다. 심지어는 연못을 메워버리는 일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일본식 정원유구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사찰의 정원은 분명한 조성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관무량수경에 근거해서 만든 정토정원이 많은데, 연꽃을 심은 연지가 바로 정토정원의 중심이 된다. 부처님의 그림자나 탑과 산봉우리의 그림자를 비치도록 만든 영지 역시 부처님이나 탑이나 산봉우리를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성된 정원이었다.

우리나라 사찰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만들지 않아도 정원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자연이 곧 정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사찰의 정원은 교리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사찰에 만들어진 교정원을 보존하는 것은 곧 교리를 수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만들어진 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전라남도 사찰에 있는 정원 모습.

가습기 살균제 걱정에서 해방!

- 물에 솟을 담궈두면 알카리성 광천수로 변합니다.
- 솟의 원적외선은 물의 분자구조를 가늘게 하고 용존산소량을 많아지게 하므로 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 솟의 다공질이 냄새와 세균을 흡착하고 양이온을 중화시킵니다.
- 물을 3배정도 더 빨리 증발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세균 공기정화 빠른가습

수풀림 천연숯가습기



수풀림 천연 숯가습기는 건조하고 메마른 실내 공기와 습도를 조절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어 감기에방과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정가 : 3만원

수풀림 숯가습기(주) www.supulrim.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동판 찻상

-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100% 국내제작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수풀림 숯가습기(주) www.supulrim.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